

## 제2강 참사랑과 바른 훈계

(삿 13:12)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딤후 2:4-5)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 1. 참사랑의 의미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부모는 분명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은 애착이고 집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예쁘게 단장시키고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이고 애착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나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 2. 잘못된 사랑법

#### 1) 과잉보호 - 절제 없는 사랑

그들이 요구하기 전,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과잉보호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부모가 대신하여줌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주로 자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대신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이를 본 부모는 더 큰 불신을 가지는 악순환을 반복 함으로써 결국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혀처럼 부모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것은 자녀를 마마보이(걸),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생도 해보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무거운 짐도 들고 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몫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여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적당한 기간을 두고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참고 기다렸다가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미숙하여 필요성을 모른다면 부모는 가족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을 유도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감사할 줄 모르게 하며, 또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써 엄밀히 말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 권위 없는 사랑 - 권위를 상실한 부모

부모로서 권위를 상실한 부모는 마치 자녀의 시종처럼 자녀의 뜻대로 움직이면서도 자신이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당한 일을 요구하면서 떼를 쓰는 경우에도 "안 돼!"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돼!"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돼!"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부정확한 사실로 인한 부모의 오류,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 등 의 수정이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함께 균형과 조화를 반드시 이루고 있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버리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절절 매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권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권위는 아내가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남편과 하나인 자신의 권위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마침내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온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덕에 돌아가시면 먼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이 형제이든, 형제가 아니든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 3) 자녀 중심 사랑

부부의 삶보다는 자녀의 삶이 우선이며 자녀의 행복만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태도를 말 합니다. 자녀의 행복이 나의 삶의 최대 목표이며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녀들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운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는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 가정의 중심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이 중심입니다.
- ✓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여야 합니다.
- ✓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부가 먼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 4) 완벽 주의적 사랑 - 유교적인 사랑(속으로만 흐뭇해하는 부모)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지 않고, 잘 못하는 것만 찾아내 더욱 잘하라고 격려한다면 자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맙니다. 칭찬과 격려는 없고 "잘 해라! 더 잘해라! 좀 더 잘해라!"라는 말이나 행동들은 자녀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부모, 늘 마땅함을 표현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 상처를 후벼 파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십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다루시는 우리 주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한 측은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부활하시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이나 상처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석 제자로서의 위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녀들의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더 노력해! 다시 시도해! 더 완벽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노력과 연약함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 격려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눅 22: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요 21:15-17)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 5) 조건부 사랑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봤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니까……” 등이 이유가 되어 사랑을 한다면, 이런 자녀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만일 자녀를 아무 일 없을 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는 조용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만일 아이의 반응이 “엄마! 갑자기 왜(그래)?”라고 반응을 보인다면 그 자녀는 이미 조건부 사랑에 익숙한 자녀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조건의 충족을 사랑으로 흥정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 3. 참된 사랑법

사랑은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 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 1)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녀의 학교 성적, 외모,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인격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그 잘못과 실수는 엄격히 다루고 훈계하며 고쳐 주어야 하지만, 그들의 인격과 존재는 항상 귀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으며 부모 또한 청지기와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아이가 처음 세상에 왔을 때, 우리에게 주었던 웃음과 즐거움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비견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십시오.

오늘 택에 가시면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웃어보세요! “네가 좋구나!”,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보세요. 오늘 꼭 한 번 표현해보세요.

#### 2)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녀의 실수에 돋보기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부모인 우리 자신도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내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고 자녀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점점 병들어갑니다.

- ① **괜찮아!**
- ② **안 다쳤어?**
- ③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아이는 아이일 뿐...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처럼 배우는 중(~ing)입니다. 멀리 보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3)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속에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여지없이 나타난 것처럼, 전달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해주지 마시고, 제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랑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고 있으며,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흔히 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물질적으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너는 우리에게 소중하기 짝이 없는 존재란다. 너의 곁에는 너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 다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모들의 말로만 아니라, 부모들의 눈, 표정,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자녀를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그들의 뺨에 뽀뽀해 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에도 이불을 덮어 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자녀들은 그러한 사랑과 격려를 통해 새 힘을 얻으며 건강한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어린아이보다 오히려 이미 컸다고 생각하는 십대 자녀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다 키웠는데 나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낙망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힐 때까지, 혹은 주님께로 올라가기 전까진 기회 언제든지 있습니다.

**4. 바른 훈계의 의미**

훈계란 타일러 경계함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열심히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뜻합니다.

훈계가 자녀를 혼내거나 잘못에 대해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훈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punishment)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수정(correction)해주는 것, 인도(guide)해주는 것, 혹은 훈련(train, disciplin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성경적 자녀 훈계인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아!”는 훈계가 아니라 응징입니다.

(잠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엡 6:4)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1) 사랑과 훈계는 하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랑 속에는 훈계가, 훈계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훈계는 진정한 훈계가 될 수 없고, 훈계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머지, 무엇이든지 좋다는 것은 다 해주면서도 자녀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마땅한 훈계를 하는 일에는 태만하다면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위가 실추되며 우리의 가르침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갖추게 될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엡 6:1-3)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엘리 제사장과 다윗의 예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는 엄격하게, 커가면서는 친구처럼!”

## 2) 훈계 시 주의할 점

(히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paideia, 파이듀오)란, 자녀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또는(함축적으로)(책벌로) 징계하다, 배우다, 가르치다(to train, to instruct, correct, to whip, 행 22:3; 히 12:6)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훈계인 것입니다.

### ①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훈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 존재와 인격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훈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사랑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와 배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그래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란다."라는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 효과적 훈계의 준비이며 출발인 것입니다.

### ② 부모가 한 뜻인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가 한 뜻으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훈계할 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녀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훈계의 효과도 반감될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고 기회에 편승하는 법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훈계가 끝난 후 다시 다른 사람이 또 훈계를 한다면 자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통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짜고짜 경찰이 와서 당신을 연행하더니 갑자기 구치소로 데려가 또 3일을 살게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부모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훈계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이미 충분히 훈계를 받고 왔는데 또 다시 부모가 거칠게 다루어 버리면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겠습니까?

자녀가 외부에서 훈계를 받고 돌아오면, 가정에서는 한번쯤 자녀의 말을 들어보고, 일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세상사 인간관계에서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때로는 위로해주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 자녀가 자기 잘못을 알고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그에 따른 훈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훈계가 더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남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엄마가 잠깐 기도의 시간(혹은 주변의 경험 있는 지혜로운 자매님, 전도인과 교제나 의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하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한 후, 당일이 지나가기 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훈계를 할 때에는 다른 한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용히 있거나 혹은 자리를 비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부모가 언제나 한 뜻이라는 것을 자녀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남편이 있거나 또는 형제라 해도 자녀 교육관이 다른 경우엔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고 때에 따라 바른 훈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부가 동일한 교육관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 ③ 부모의 감정 폭발은 아닌가?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의 폭발로 자녀를 야단치고 나서 훈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공정한 훈계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들고 안 들고, 혹은 부모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자녀들에게 반응하는 훈계(?)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폭발이며, 이러한 감정 폭발은 자녀들을 혼란되게 하거나 좌절시키며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의 즉흥적인 훈계보다는 바른 훈계를 위해 부모가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감정 폭발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특정한 버릇이나 습관적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것보다는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훈계하고,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감정 폭발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민수기의 발람이라는 사람의 분노가 자제심을 잃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22:27-29)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말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같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당나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 발람은 자신의 지팡이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만일 발람에게 같이 있었다면 당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화가 난 부모들은 그 화가 통제되지 않으면 발람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 ❶ 발람은 모든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당나귀부터 때렸습니다. 부모들도 성급하고 근거 없는 결론부터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확인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 ❷ 발람이 당나귀를 때린 것은 자신이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훈계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창피를 당했다던가, 혹은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보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❸ 발람은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자녀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을 때, 훈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자녀의 개인성이나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였나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모두 다릅니다. 어느 자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사색적인가 하면, 또 다른 자녀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각 자녀의 기질과 능력, 개인성 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동일한 잘못을 자주 되풀이하는 경우, 그 잘못이 고의적인 것인지, 게으름인지, 능력의 부족인지 혹은 성격적으로 힘든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훈계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것이며, 자녀를 좌절시킴 없이 양육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⑤ 성과 위주의 기준은 아닌가?

우리 사회는 모든 평가가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도 드러난 결과에만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의 결과를 가져온 자녀에게 틀린 숫자만큼 매를 때린다면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받아쓰기는 글을 배우기 위한 연습 과정인데 어려서부터 노력에 대한 격려는 없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을 심어 주어 더욱 위축감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적 훈계는 마음과 동기를 다스리는 훈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녀들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 ⑥ 잘못은 다루되 여전히 인격은 존중하고 있나요?

부모는 "네가 저지른 잘못은 밋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소중하기 짝이 없는 나의 자녀란다"라는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표현도 하고, 확인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 자체를 소중하게 다루며 존중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훈계의 효과적인 면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 ⑦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있나요?

자녀가 자신의 실수의 결과를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한 훈련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결과를 겪으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가 홀로 겪기에 너무 벅찬 경우에는 자녀가 알지 못하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돕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 배우며 성장해 나가도록 지켜 보아주는 과정 역시 훈계의 바람직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7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한 책임 훈련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5. 책망과 체벌

훈계는 실제로 매를 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매'는 폭력이나 힘의 남용이 아니라 '사랑과 진정한 권위의 매'가 되어야 합니다.

(잠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잠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초달, 채찍(쉐베트)은 회초리를 뜻합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폭력이지 바른 체벌이 아닙니다.

(잠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 ✓ 체벌의 목적은 온 힘을 다해서 자녀가 굴복할 정도로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닙니다.
- ✓ 체벌이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죄의 지적과 훈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성경 말씀을 들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일이다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에 위배되면 아이들에게 분노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매’만 맞았을 뿐입니다.

√ ‘매’는 고통을 충분히 느끼도록 그러나 몸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매’는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 바르게, 그리고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감정 폭발을 피하기 위해서도 ‘매’가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를 특정한 공간에 두어서, 찾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도록 놓아두면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훈계를 위해서, 또는 정말 자녀의 유익을 위한 공정한 훈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회초리’는 부모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자녀를 때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책망만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체벌도 병행해야 하지만, 체벌의 빈도는 줄이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매는 초등학교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넘어서면 점점 효과가 반감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학생 이전에 바른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은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등부 자녀를 더 많이 두신 조의 부모님들은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잠 17:10) 한 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 1) 책망에 대한 잘못된 반응

### ① 책망을 업신여김

(잠 1: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잠 9: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 15:12)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 ② 책망을 버리는 것

(잠 10: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 ③ 책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잠 15:10)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잠 12: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 2) 책망에 대한 올바른 반응

### ① 책망에 대해 돌이킴

(잠 1: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 ② 책망에 주의를 기울임

(잠 13:18)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 ③ 책망을 듣는다.

(잠 15:31)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 3) 잘못된 체벌

① 체벌은 고통을 주는 것, 멍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 ② 체벌은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 ③ 부모의 좌절감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 4) 체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먼저 마음을 진정하세요. 진정되지 않으면 잠깐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때 조용히 기도하세요. 당신이 거듭난 이후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하고 돌이켰던 기억을 한 번 떠올려보세요. 그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천천히 심호흡을 5번만 하세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먼저 기도해보세요.

첫째 : 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채찍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채찍이 아닌 부모의 손을 체벌의 도구로 삼는다면 아빠나 엄마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체벌로는 막대기, 회초리가 적합합니다.

둘째 : 즉시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체벌은 아버지가 올 때까지 어머니에 의해 지연되면 안 됩니다. 체벌이 지연되면 자녀가 징계받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맞을 줄 알아라. 아빠 오시면 때 맞을 줄 알아라! 라고 하면 아이에게 오랫동안 부담을 주는 것이고 아빠를 때리는 분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전 8: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셋째 : 가능하면 둘만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체벌을 가하기전에 그 아이가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벌이 아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는 애매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 적당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는 무릎위에 놓고 때리는 것이 좋지만 조금 자라면 의자나 책상을 잡고 구부리게 한 다음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을 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발로 차거나 몸을 비틀거나 손으로 막음으로 체벌을 거부하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잠 15:10)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징벌에 대한 반항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 적당한 부위를 때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부위는 엉덩이로 탄력이 있고 예민하며 안전한 곳입니다. 체벌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회초리가 살에 잘 닿는 곳이어야 합니다. 두꺼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 적당한 울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벌의 목적은 자녀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회개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마음을 돌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참된 슬픔을 갖는 것입니다. 체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

니다. 그리고 알맞은 체벌은 아이에게도 잘못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심리적인 자유와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체벌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여덟째 : 반드시 마음을 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체벌을 가한 후에는 잠시 동안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구석에 세워두거나 식사를 거르게 하는 등 계속 혼자 내버려 두어 고립시키면 아이의 마음속에 원망과 함께 모진 성격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체벌 뒤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포옹이나 잠시 동안의 기도를 통해 마무리를 짓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새로운 각오에 대해 말하게 함으로 기분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요즈음처럼 한 두 자녀만 두어 체벌 없이 기르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 밖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바른 훈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벌을 가하되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6. 가정 내 기준, 규칙 세우기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 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이란 규율, 원칙 또는 판단 등의 평가 수단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의 규칙, 규율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있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는 자기 스스로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가정의 규칙을 세우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가정 교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을 합의에 의해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의 제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 규칙의 요소

- ① 준수 - 먼저, 자녀가 규칙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규칙을 시행합니다.
- ② 인정 - 규칙의 확인자인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규칙에 대한 자녀 인정이 필요합니다.
- ③ 책임 - 행동 규칙은 약속의 이행이 강조되어야 하고 불이행시 책임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 ④ 자기 통제 - 타인에 대한 배려 행동과 자기 통제 내용(스스로 지키기)이 있어야 합니다.

### 2) 규칙 세우기와 시행 시 피해야 할 것들

- ①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의 결과로 규칙 내용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② 규칙을 어겼을 때, 정해진 책임지기를 지체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③ 규칙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가정 교제를 통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단 하나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며 큰 기쁨을 얻는 자는 정녕 행복한 여인입니다.

(잠 14: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 31:28,29)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